

‘영끌’ 수요에 6월 가계대출 6조 ↑… 8월부터 감소 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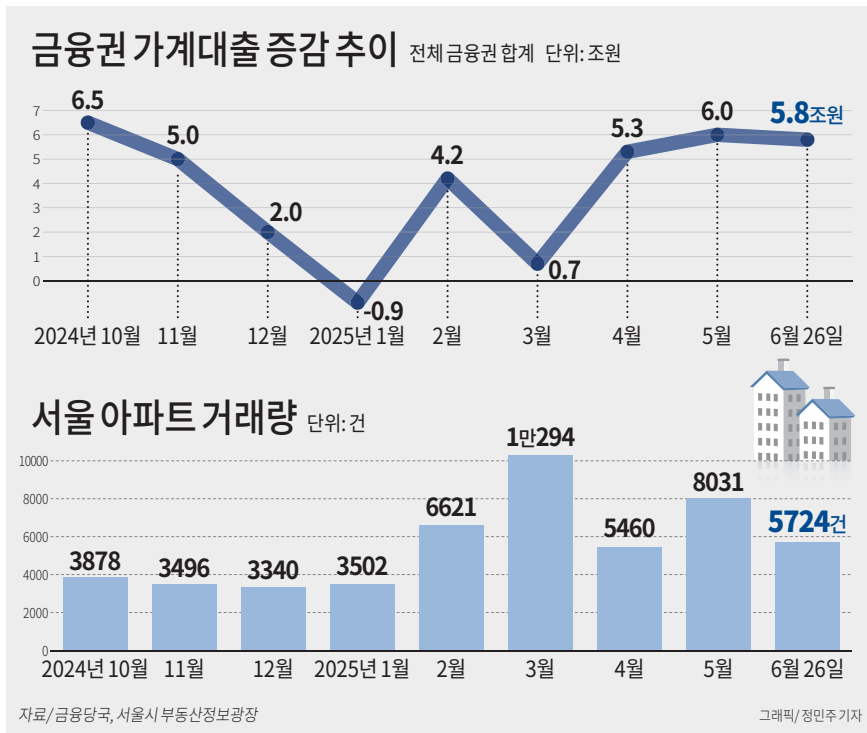
금리 인하·집값 상승 기대감에
6월 가계대출 증가폭 올해 최대

수도권 주담대 6억 한도 규제로
8월부터 ‘고액 영끌’ 위축 예상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은행권 가계대출이 한달 새 6조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초강력 규제를 시행해 다음달 부터는 ‘고액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 수요가 눈에 띄게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5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남은 기간 대출 집행분을 고려하면 6월 한달 간 증가액은 6조원 중후반에 달할 전망이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1월 -9000억원에서 ▲2월 4조2000억원으로 증가 전환한 뒤 ▲3월 7000억원 ▲4월 5조 3000억원 ▲5월 6조원으로 증가했다. 6월 대출 증가폭이 올해 들어 가장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가계대출이 증가한 배경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부동산 상승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6

월 서울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724건으로 한달 전(8031건)과 비교해 40%나 증가했다. 수치상 6월 거래량은 5월 대비 낮지만 매매 거래 후 한 달 이내에 실거래 신고해야 한다는 규약에 따라 6월 매매 거래의 신고기간은 약 1개월 가까이 남았다.

업계에서는 6월의 거래량이 5월의 거래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파트 매매값도 올랐다.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상승했다.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매도 희망 가격이 상승하며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담대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대출규제 대책을 내놔다.

지난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최장 만기 30년 축소 등이 골자다.

업계에서는 대출 실행일까지는 시차가 발생해 실질적인 규제 효과는 8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규제 강화 관련 뉴스가 나오자 지점으로 대출 문의가 많이 왔다”며 “이미 대출 계약을 체결한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규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샤오미 ‘AI 안경’ 출격… 스마트 글래스 전쟁 점화

메타 독주에 샤오미 도전장
삼성·구글 연합 개발 속도
애플·LG도 시장 진입 준비

중국 IT기업 샤오미가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안경을 선보이며 웨어러블 시장 경쟁에 본격 뛰어들었다. 메타·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가 이미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애플 등도 잇따라 출시를 준비하며 ‘눈 위의 플랫폼 전쟁’이 가열되고 있다.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등 외신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샤오미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열린 신제품 발표회에서 ‘샤오미 AI 글래스’를 공개했다.

신제품은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와 음성 기반 AI 비서 ‘샤오AI’를 탑재해 영상 촬영, 실시간 번역, 사물 인식, QR 결제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한다. 전기변색 렌즈는 0.2초 만에 색상이 바뀌며, 무게는 40g이다. 퀄컴의 AR 전용 칩셋 ‘스냅드래곤 AR1’을 장착했으며, 완충 시 최대 8시간 36분 사용할 수 있다.



26일 샤오미가 공개한 AI 안경.

/샤오미 홈페이지 갈무리

중국 내 출고가는 1999위안(약 38만원)으로, 시장 예상보다 30~40% 높은 수준이다. 정보기술(IT) 전문매체 기즈모도는 “변색 렌즈, 연속 녹화, 결제 기능 등에서 메타의 레이밴 스마트 안경을 앞선다”고 평가했다.

한발 앞서 관련 시장을 선점해 온 구글도 삼성전자와 함께 AI 기반 스마트 안경 ‘프로젝트 해안’을 공동 추진 중이다.

현재 구글은 삼성전자와 확장현실(XR) 헤드셋을 만드는 프로젝트 ‘무한’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협업을 스마

트 글라스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하드웨어를, 구글은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한 소프트웨어를 맡으며, 디자인은 국내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가 담당한다.

초도 물량은 약 50만 대로 알려졌다며, 올해 안에 개발자용 버전이 먼저 공개되고 내년 상반기 양산이 점쳐지고 있다.

LG전자는 공식적인 출시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최근 중국에서 관련 특허를 확보하며 시장 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LG전자는 착용감 개선·시

수 세다”며 “고가 주택 기준으로는 사실상 LTV가 30~40% 수준까지 낮아지는 효과가 난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 장기적으로는 물가 안정 등 거시 변수가 함께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대출 총량 제한이 오히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 전문위원은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면서 실수요자와 고소득 무주택자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며 “현금이 부족한 2030세대는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억원이 넘는 분양 단지의 잔금대출마저 제한되면, 당초 자금 계획을 세운 실수요자에게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현금 부족 2030세대 서울 내집 꿈 멀어져

» 1면 ‘강남 등 서울 고가…’서 계속

그는 “한강변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은 자기 자본을 9억~10억원 이상 확보하지 않으면 매입이 어려워 매수세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외곽 지역 풍선효과나 전세시장 불안과 같은 간접 영향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

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이 기존 부동산 규제와 비교해 강도가 월등히 높다는 입장이다.

그는 “규제지역 지정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조정 같은 기존 조치들과 비교해도 이번 대책은 강도가 매

대한상의, 제조업 조사

3분기 경기전망 81 관세·내수침체 영향 체감경기 부진 지속

수출 회복세와 새정부 경제정책 기대감에 3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가 소폭 상승했지만, 미국 관세압박, 중동불안, 내수부진의 삼중고에 체감경기 상승폭은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국 제조업체 2186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3분기 제조업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79)보다 2포인트 상승한 81로 집계됐다.

16분기 연속 기준선(100)을 밑돌았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89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중견기업(77)과 중소기업(81)은 여전히 부정적인 전망을 유지했다.

BSI는 지수가 100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체감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이하면 그 반대다.

반도체(109), 제약(109), 화장품(113) 업종은 수출회복세에 힘입어 기준치를 상회했다. 특히 반도체는 AI 확산에 따른 고부가가치 메모리 수요 증가로 전분기 대비 22포인트 급등하며 1년 만에 100을 넘었다. 화장품 업종은 관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유럽(40.7%), 중동(65.6%)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며 가장 높은 전망치를 기록했다.

반면 미국의 관세 적용을 받는 철강(67)과 자동차(76) 업종은 부진이 심화됐다. 철강은 대미수출 감소와 함께 중국·일본산 철강재의 국내 우회수입 증가가 부담으로 작용했다. 자동차도 대미 관세 부담으로 5월 기준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7.1% 감소했다. 석유화학(72)은 글로벌 수요 둔화와 유가변동성이 불확실성을 키우며 전망이 어두웠다.

지역별로는 산업구조 차이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제주(100)는 반도체와 식음료 업황 개선, 관광수요 회복 기대감이 반영됐다. 강원(97)도 여름철 관광객 증가와 소비심리 회복 덕에 선방했다. 반면 인천(63)은 기계장비와 자동차부품 업종 부진이 뚜렷했고 대구(64)·경북(69)은 철강과 섬유업 침체의 영향을 받았다. 울산(75), 경남(79)도 철강·자동차·석유화학 업종의 관세 부담과 수요 둔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상반기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제조기업이 절반을 넘었다. 제조기업 54.1%가 상반기 매출이 목표에 미달했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16.4%는 목표 대비 10%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들은 상반기 사업실적을 제약한 대내외 리스크로 ‘내수 부진’(64.7%)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원자재가 상승’(30.9%), ‘해외수요 부진’(23.8%), ‘환율 변동’(19.3%), ‘관세 조치’(18.0%)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승용 기자 lsy2665@